

# 9월부터 입시비리大 재정지원 제한

###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 제재수위도 비리 정도보다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강화

올해 9월부터 입시·학사비리 등으로 적발된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사업 수혜 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늘어났다.

제재수위도 대학이 부정·비리를 저지른 정도에 해당하는 제재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안을 17일 발표했다. 투명·합법·공정·공평·공익을 위한 입시·학사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대학재정지원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관리한다는 취지다.

개정된 매뉴얼에 따르면 입시·학사비리로 적발된 대학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대학 특성화(CK), 대학

자유역량 강화(ACE+) 등 대학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기간은 기존 '최근 1년 이내'에서 '최근 2년 이내'로 정부재정 수혜 제한기간이 늘어났다.

입시·학사비리로 적발된 대학에 대한 부정·비리 정도에 따른 제재수위도 대학이 부정·비리를 저지른 정도에 해당하는 제재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강화된다.

예를 들어 부정·비리 정도가 입학처장과 학장 등 주요 보직자 이상에 대한 강등·징계 처분이 있거나 고발·수사의뢰 등 별도 조치가 있는 '유형III'에 해당하는 경우 이보다 중한 입학처장과 학장 등 주요 보직자가 파면이나 해임되는 '유형II'의 수혜제한 수준을 적용받는다. 부정·비리 정도가 '유형II'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대학 이사장 또는 총장이 교육부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동일한 사유로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을 경우에 해당하는 '유형I'의 수혜제한 수준이 적용된다.

입시 및 학사 부정·비리 정도가 가장 중한 '유형I'에 해당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사업 수혜 제한 기간이 2년으로 무조건 연장된다.

이번 매뉴얼에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참여 대학 선정, 평가 등에 참여하는 평가위원 관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 평가위원장 뿐 아니라 평가위원도 평가대상 기관에 2년 이내 개별적인 컨설팅을 시행한 사실이 적발되면 평가에서 제외시키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 내 대학 재정지원사업 담당자들이 평가점수를 조작하거나 평가결과를 누설하는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위원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향후 평가위원 명단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또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학생들의 교육적 혜택 등을 고려해 해당 사업 종료 5개월 전까지 검찰 수사·기소 등으로 집행·지급 정지된 사업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대학이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지급정지된 사업비를 집행·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업비 집행·지급정지 해제 이후부터 사업기간 종료 전까지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결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환수하는 등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검찰 수사·기소 등으로 집행·지급 정지된 사업비에 대한 판결이 사업 최종연도 말까지 확정되지 않아도 해당 사업비를 삭감 또는 환수 조치해왔다.

이번 매뉴얼 개정안은 9월1일부터 적용된다. /뉴시스

## 군산대-휴인스, 인공지능 드론·이동체 관련 기술 이전 협약

군산대학교(총장 박병선)가 16일 군산대학교 본부 제1소회의실에서 (주)휴인스(대표이사 송대훈)와 2건의 특허 및 1건의 노하우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군산대가 이번에 이전한 기술은 "주변사물 및 상황을 인식·학습하여 자율 주행이 가능한 인공지능 드론 및 이동체 관련 기술"로 군산대 기계융합시스템공학부 이덕진 교수(인공지능 자율시스템센터장)가 개발한 기술이다.

(주)휴인스는 협약을 통해 2023년까지 전용실시권을 사용하고, 선급기술료 2억원과 경상기술료로 매년 발생하는 당기매출액의 2%를 지급하게 된다.

이번 기술이전을 통하여 군산대와 (주)휴인스는 "인공지능 및 자율이동체 기술의 공정개발 및 상용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산학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으며, 전북연구개발특구, 한국산

업단지관리공단 및 전북테크노파크 등의 정부지원 사업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휴인스는 군산지역에 사업장 개설 또는 연구소기업 설립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투자를 확대해나

갈 예정이고, 향후 졸업생 취업 및 R&D 사업 등을 협력하여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대학교가 16일 본부 제1소회의실에서 (주)휴인스와 2건의 특허 및 1건의 노하우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 고3 담임교사 수시 진학지도 역량강화 연수 실시

### 교육청, 대입상담프로그램 활용 방법·수시상담기법·지원전략 등

현행 대학입시에서 수시모집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고교 현장에서 수시모집을 대비하는 담임교사의 진학지도 및 상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9월 10~14일 실시되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 원

서접수를 대비한 '고3 담임교사 수시 진학지도 역량강화 연수'를 16일과 17일, 이틀간 실시했다.

도내 90여개 고등학교에서 500여명의 담임교사가 참여하는 이번 연수는 16일과 17일 중 1일씩 참가하며, 연수 내용은 대교협 대입상담프로그램의

활용 방법 안내와 2019학년도 효율적인 수시상담 기법 및 지원전략에 대해 대교협 관계자와 대표강사의 상세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대입상담프로그램은 전년도 합불 자료를 통해 지원 가능한 대학 및 학과의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진학상담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입시지도에 기준을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전년도 입시결과와 분석을 통한 대학별, 전형별 지원전략은 진학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3 담임교사의 진학지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대입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모의면접캠프를 7월 31일에 실시하고, 2019학년도 수시지원 전략 설명회를 8월 18일에 연다.

또한,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 대입상담도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전북교육청에서 실시하며,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무주교육지원청에서도 9월 1일과 2일에 대면상담을 진행한다. /김재훈 기자



전주기전대학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안군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부안군 산업체 현장탐방이 실시됐다.

## 기전대학, 부안 미취업자 산업체 현장탐방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안군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부안군 산업체 현장탐방이 실시됐다.

최근 부안군 미래창조경제과와 협력을 통해 지역 내 17개 업체와 미취업자에 대한 채용약정을 체결하였고, 채용약정 업체 중 우수업체 5곳을 선정하여 현장탐방을 가졌다.

부안군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전주 기전대학 산학협력단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는 '부안 참뽕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양성사업'은 부안군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주 기전대학 산학협력단은 지역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요자 중심교육을 진행하여 산업체 취업 시 원활한 적응 및 전문교육을 통한 신규창업 양성을 위한

목표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날 현장탐방은 지역 산업체와 미취업자 간의 대화를 통해 기업은 지역민과 상생, 지역민은 산업체 환경을 이해하는 지역민과 산업체 간 서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소규모 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지역 내 다양한 산업체 탐방이 이뤄져 수강생은 추후 근무하게 될 산업현장 적응력과 인적, 물적 네트워크 강화 및 취·창업에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준비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시간이 됐다.

조덕현 전주 기전대학 산학협력단장은 "이 사업을 통해 산·학·관 간 상호협력증진을 기대하며 지역민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 무주교육지원청, 장애인식개선 공연 성료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반징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17일 무주 예체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함께 가요! 더불어 콘서트!'를 열었다.

무주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이번 장애인식개선 콘서트는 무주 관내 학생 및 교직원, 무주군민 등 500명이 참가하였으며, 수준 높은 문화 예술을 향유하고 지역 전체의 장애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콘서트는 시각장애 연주단 한빛예술단의 해설과 영상을 활용한 스토리가 있는 음악회로 브라스 앙상블, 밴드 공연, 오케스트라 공연 등의

다채로운 공연이 이뤄졌다.

장애인 예술가가 참여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남을 기대하고 장애학생의 보다 나은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에 대한 선입견을 개선할 수 있는 장애인식개선의 효과도 기대된다.

반징수 교육장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장애를 가진 출연진의 열정적인 공연으로 비장애인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였으며,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하여 차별과 배제가 아닌,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자연스러운 장애인식개선효과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